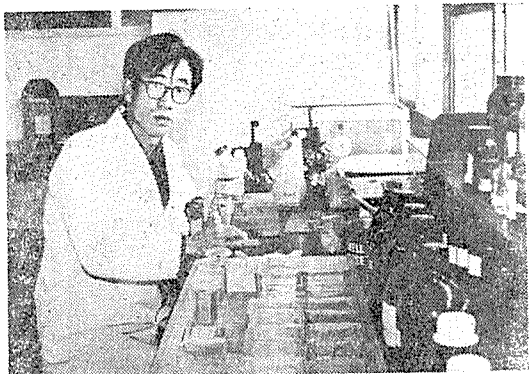


날뱀·개구리 먹고 걸린다는 이상한 벌레 『스팔가눔』



趙 昇 烈

▷ 연구실에서 실험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조승렬씨

어느 시골의 농부, 고향에 딱딱한 것 만져져, 암으로 알았으나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보니 하얀 벌레가 나와

어느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 아내도 살아보겠다고 아주 열심히었다. 아이들도 순탄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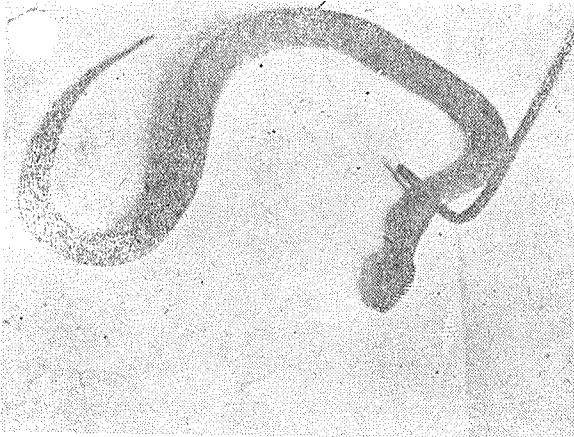
데 이 농부에게 요즈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겨서 마냥 우울하였다. 그것은 이 농부의 중요한 가운데 주머니속에 무엇인지 딱딱한 것이 만져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엄지 손가락만 하였다. 그 이전에는 틀림없이 그런 일이 없었다. 요사이 생긴 일이었다.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이상병이 그런 일이 있어서 후송가더니 암이라고 하면서 1년쯤 입원했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는데 혹시 나도 암에 걸린것이 아닌가. 그러면 큰일인데. 아직 큰애가 국민학교 1학년이고 할머니는 자식이 셋이면 모자라니 하나만 더 낳으라고 매일갈

이 성화를 하시는 판에. 이것참 재수가 없구나. 내가 죽으면 마누라는 어떻게 할가?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자꾸 방정맞은 생각이 먼저 들기만 하였다. 농부는 생각하였다. 「죽으나 사나 한번 병원이나 가보자」 마누라에게는 서울 간다고만 말하고 병원문을 들어서니 웬 과(科)들이 그리 많은지. 아무래도 비뇨기과가 좋겠지 하고 진찰을 받아보니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당태를 한 10분은 주물럭하시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암 입니까」하고 속에 묻혀있던 말이 농부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그렇게 참아 왔었는데. 「수술하여 보아야 알겠다」고 하시니 절간에 간 새댁처럼 받을 재간밖에는 없었다.

「당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살모사. 그러나 이 살모사에는 「스팔가눔」충란이 붙어있다.



거요」 수술을 끝내니 밑이 땅기고 아픈데 의사선생님이 보여준 그릇 속에는 물속에서 약 15cm는 뒹직한 흰색의 벌레 한마리가 유유히게 왔다 갔다 하지를 않는가? 「웬 그것참 이거 살아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돼지고기 따위 날로 먹으면 위험, 보통은 20센치쯤이나 큰 놈은 1미터 짜리도 있는 조충(條虫)의 일종

의사선생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이 벌레의 이름은 『스팔가눔·만소니라』는 것인데 이러한 벌레는 개구리, 뱀, 닭, 돼지, 고슴도치, 샥쟁이 등의 살속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동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뱀의 살속에 아주 흔히 들어있다. 이 벌레가 들어 있는 고기를 사람이 날로 먹으면 속에 있던 『스팔가눔』이 다시 사람의 창자(腹)벽을 뚫고 살속으로 돌아다니게 된다. 이 벌레는 여행을 좋아하는지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여 앞가슴에 며칠동안 살속에 나타났다가 한달쯤 후에는 등에 있었다 하던 다시 배(腹)에서 몇달 동안 살속에서 응어리로 만져지기도 한다. 이 『스팔

가눔』이 제일 잘 나타나는 곳은 배의 피하조직이고 기타 가슴, 목, 음낭, 사타구니, 다리 등에도 나타나고 눈(眼)에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벌췌하던 사람이 즐지에 사지가 마비되어 운신을 못하고 아픈줄도 모르게 되어 척수(脊髓)에 혹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수술하여 보니 이 『스팔가눔』이란 벌레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던 사람도 있다.

날 뱀 좋아 하는 농부에게 잘 걸리는 병, 그러나 끊어 먹으면 안 걸린다

이 『스팔가눔』벌레가 사람 몸에 기생하는 것을 『스팔가눔증(症)』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여 걸리는가 하면 물속에 사는 물벼룩의 일종에서

▷ 다 자란 「스팔가눔」. 마치 허리띠처럼 길다



『프로씨코이드』라고 하는 『스팔가눔』보다 어린 벌레가 자라는데 농사일을 하다가 혹은 시골 길을 가다가 목이 탄다고 흐르는 물을 그냥 마시고 나면, 혹시 걸리는 수가 있고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개구리, 뱀, 돼지고기 등을 날로 먹어도 걸리게 된다. 이 커레가 사람몸에 들어오면 보통 10~20cm 까지 되지만 아주 길면 1m 까지 벌지기도 한다. 이 벌레를 개나 고양이

이에 먹이면 그 창자에서 자라서 아주 긴 초충(條虫)이 되어 알을 낳게 된다.

의사선생님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이 농부는 생각하여 보았다. 자기가 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뱀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잡아서 잘도 먹었다. 끊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하고, 옛날부터 몸에 좋다고 하는 뱀이 「날 잡아잡수」하고 나타났는데 그냥 놓아 둘 턱이 없었다. 더구나 양기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거 웬 턱이냐 하고 보이는 대로 먹어 치웠었다.

그 농부는 의사선생님께 다시 여쭙 보았다. 「뱀을 구워 먹거나 끊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물론 그 벌레도 함께 죽으니 상관없지요.」 하고 대답하셨다.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